



한인회보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11514-15th N.E., Seattle, WA 98125 Paul H. Shin, Publisher Shi Chung Park, Editor

VOL. 2, NO. 5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AUG. 1975

8.15 기념 야유회 - 링컨 파크 에서 -

해방 30주년을 맞아 고국을 떠나 있는 우리도 다시 고향을 되새기고 기념하는 뜻으로 교포들이 한자리에 모여 간단한 기념식과 함께 야유회를 가지게 되었다. 장소는 라코니아 사는 교포들과 씨아들이 사는 교포들이 각 함께 참석 하자는 의도로 뜻의 중간지점인 링컨 파크(Lincoln Park)로 정했다. 시간은 11시부터, 장소는 각자 지참하되 목선자들을 위해 넉넉히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다. 각같이 이날의 뜻을 기리기 위해 남녀노소 다함께 참석할수있는 각종 운동경기 오락도 마련 했는디 남.녀 배구시합, 텃취볼, 줄라리기, 풍물라기, 보물찾기, 피아들 뿔뿔기 등이 그것이다. 워싱턴주에 사는 교포 여러 분은 물론 그친지들의 많은 참석을 요망하고 있으며 약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



워싱턴 - 밴쿠버 친선 야유회
- 많은 교포 참석, 성황리에 폐막 -

가져본다.
한편 운동경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오래전부터 기대해 왔던 밴쿠버에 사는 한인과 워싱턴주에 사는 한인이 한자리에 만나는 잔치는 예상대로 즐겁게 끝났다.

카나자와 워싱턴주의 국경지대인 피스 사취공원에서 따로따로 살던 한 동포가 한자리에 앉아 경기를 함께 나누고 각기 라운전이 되어 운동 경기도 했다.

한쪽에는 하얗고 놀라랴게 서있는 피스 사취, 한쪽은 바라친 공원은 거의 한인 사회가 전세년것처럼 한인들이 독차지 하라 시피 했었고 남녀노소가 각같이 함께 참가해서 즐길수가 있어서 좋았다.

미리부터 선수가 결정되어서 충분히 연습할수 있었던 남자배구와, 남자 릴레이, 미성년자 줄라리기는 압도적으로 밴쿠버팀을 누를수 있었으나 다른 경기는 연습부족으로 아깝게 패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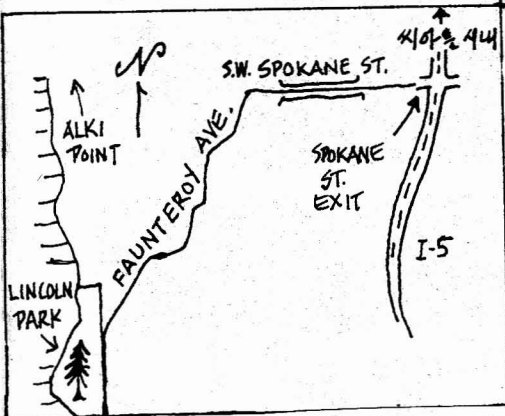
본 경기종목 이외에 추가종목으로 축구 경기를 열었는데 워싱턴측이 우수하게 이겼다.

비록 운동시합성적으로는 패했지만, 국경까지 내려오는 수고도 마라하고 많은 교포들이 참석해서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눌수 있었던 것에 대해 흐뭇하게 생각하며 내년에는 좀더 적극적인 선수참석과 충분한 연습으로 밴쿠버측이 차지한 우승기와 우승대를 라서 찾았으면 하는 기대를

밴쿠버 : 씨아들

- 1) 여자 텃취볼 2 : 1
- 2) 남자 줄라리기 1승 2패
- 3) 여자 줄라리기 1승 2패
- 4) 미성년자 줄라리기 2승 1패
- 5) 남자 릴레이 승리
- 6) 여자 배구 패함
- 7) 남자 배구 압승

전체성적 밴쿠버 : 씨아들
60 : 50



한국의상소

워싱턴 대학 주최
한인회
워싱턴 대학 한국학생회) 후원

한국 문화와 예술, 이라는 하기 강좌의 하나인 한국의상소가 7월 27일 오후 2시부터 워싱턴 대학 Ethnic Center에서 열렸다. 한국인의 의상, 들복, 결혼식복 등 나이와 성별과 경우에 따른 갖가지 옷을 보여 주었는디 교무부장인 오메희씨의 자상한 계획과 노력의 힘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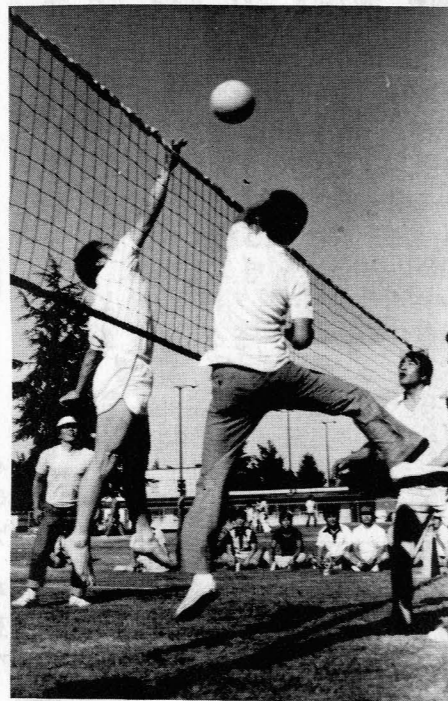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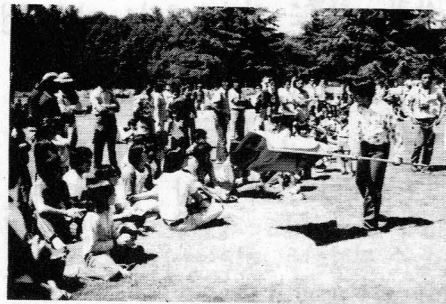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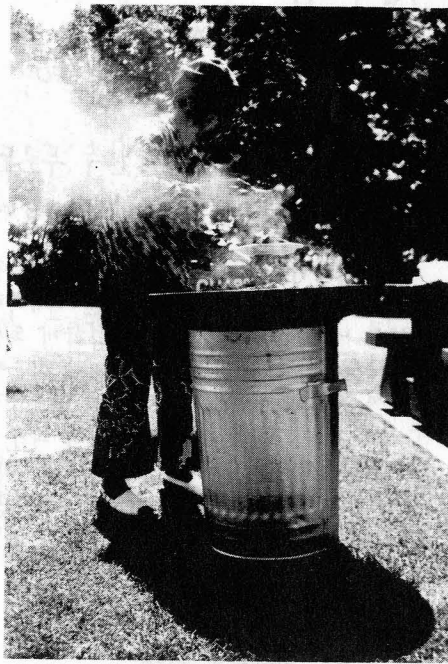
SEA FAIR 에 한국민속 푸르도

- 한인회, 이들음식점 차려 한식 소개할 예정 -

해마다 열리는 Seattle 중요 행사인 하나인 Sea Fair에 다른 아시안 커뮤니티와 어깨를 나란히 한인사회도 활약하게 되었다. 7월 31일, 8월 1일 양일간 최이나 라운에서 열리게 되는데 시간은 12시부터 밤 9시까지다.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등이 각기 고유한 자국의 민속과 풍속을 소개하리라 하는데 한국에서는 한국고전음악, 가야금, 고전무용을 보일것이며 한국토산물 상점도 열게 될것이라고 한다. 또한 한인회, 이사회원들의 부인들이 간단한 한국음식을 마련, 이들동안 간이음식점을 열게 될것이라 하는데 교포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기대하고 있다.



워싱턴 은행우버 야유회 스냅



E.O.C를 찾아서

우리는 새로운 땅에서의 새로운 희망과 포부를 안고 어려운 관문을 여러차례 거쳐 미국 땅에 발을 디딘다. 그러나 미국에 오기 위한 길을 뚫고 여권을 얻고 비자를 받아 비행기에 오르는 것으로 고성이 끝나버리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정말 정착해야 할 고성은 비행기의 트랙을 내려서서부터라. 알도 안락하고 낯도 설고 량장 살아갈길이 막막한 것이다. 그런 우리에게 E.O.C 라는 길잡이가 있다는 것은 시간 라행한일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E.O.C 에서 과연 어떤일을 어떻게 도와주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편집자는 권영길씨를 찾았다.

편 : 먼저 E.O.C 란 기관의 내막이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권 : 한마디로 직장안내기관입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직업을 얻을수 있다는 뜻이죠.

현재 E.O.C 에는 한국사람으로는 김흥기씨와 제가 있습니다. 김흥기씨는 각사업체나 기관으로 다니며 일자리를 찾는 역할을 하고 계시죠. 어이제비가 들어나가 역할을 찾아리니듯 말입니다. 김흥기씨가 모야은 일자리를 보통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한가지 분명히 말씀드릴것은 저희들은 취직을 시켜드릴 권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취직을 시키는 권한은 서리까지나 고용주의 권한이 쥔 것이지요. 우리들의 능력은 이리이러한 곳에서 사람을 구하나 한번 가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길잡이일 뿐이죠.

편 : E.O.C 에서 직업알선 뿐만 아니라 직업 훈련도 시킨다고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하시죠?

권 : 아 그 직업훈련은 사실 E.O.C 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Employment Security Department of Washington State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현재 E.O.C 의 건물을 빌려쓰고 있는 랫으로 제가 그일에도 관여하게 된 것입니다. 또 E.S 이 종사하는 한국분도 없고 해서 통역 등의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편 : 그런데 E.S 는 서브기관에서 주관하는 건지요?

권 : 크게 거슬러 올라가면 Federal Government에서 기금을 받는 것이지만 직접 E.S 이 주는 것이 아니라 King and Snohomish County 의 Man power Consortium 을 통해 전달되는 것입니다.

편 : Training Program 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권 : 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S.O.I.C (Seattle Industrialization Center), Individual Referrals For Trainees.

On the Job Training 등이 있는데 이 네가지중 한가지 Program 이 가입하자면 첫째 성격적으로 가난 (저소득층) 해야 합니다.

편 : 이 네가지를 간단히 설명좀 해 주십시오.

권 : 먼저 E.S.L 은 이민온 사람이 기술은 있으나 언어장애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 설치한 영어교육 Program 인데 총 인원은 30명이고 그중 한국인에게 배양되는 자리는 7명-8명입니다.

교육기관은 이주동안인리 1회정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 신청 방법은 먼저 E.O.C 로 오셔서 저를 만나 간단한 영어회화 시험을 보신후 통과되면 Seattle Community College 에 가서 라서 정식으로 영어 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성적이 나오면 최종결정은 Counselor 와 제가 하게 되죠.

편 : 성격이외에 특별히 참조하는 사항은 없는지요?

권 : 비. 음모자가 많으므로 굉장히 경쟁이 심한데 우선순위는 역시 경제문제와 관련시켜서 부양가족을 가진 사람에게 줍니다.

편 : 음모를 먼저하고 나중 학교에 따라 우선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요?

권 : 음모기간 안에 하시면 1건 상관이 없습니다.

편 : 하루 몇시간 정도나 공부하는지요?

권 : 오전 8시부터 2시반까지 6시간 동안입니다.

편 :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언제 새 Program 이 시작되는지요?

권 : 가을학기 부터 음모자를 새로 뽑으니 9월 초순까지는 음모해야 합니다.

편 : 다음은 S.O.I.C 에 대해서 좀...

권 : S.O.I.C 는 전적인 직업훈련 센터인데 열가지 종류의 훈련 종류가 있습니다.

① Welding ② Pipe fitting and plumbing ③ Auto Mechanics ④ Auto body and

tender ⑤ Electrical Maintenance ⑥ Key Punch ⑦ Clerical ⑧ Carpentry ⑨ Seamanship ⑩ Pre-med ⑪ 부록 ⑫까지는 Waiting list 에 따라서 자리가 날때마다 들어 가게 되는데 보통 4.5개월 기다려야 합니다. 음모과정은 E.S 의 Counselor 에게 음모한후 자리가 생기면 적성검사의 성적을 편 영어 시험을 보고 거기 합격되면 일주일내로 입학이 가능하며 훈련기간은 3개월 내지 6개월이 걸립니다.

⑬은 Community College 에 입학하기 위한 학생을 위해 준비과정의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기간은 보통 6개월간입니다. 이 6개월간은 생활 보조비를 받을수있지만 일란 College 에 입학이 되면 경제문제는 자신이 해결해야 합니다.

편 : Individual Referral for Training 이란 어떤 것이요?

권 : Federal Government 에서 State 에 내보내는 돈으로 하는것인데 돈이 나왔라 안 나왔라 해서 아주 불규칙합니다. 일종의 위탁교육이지요. 훈련센터에서 전문학교에 라 이사람에게 이런 기술을 좀 가르쳐 달라고 위탁하는 겁니다.

편 : 기술분야는 어떤것이 있으며 기간은 얼마간 인지요?

권 : 거의 전부가 있으며 일년간 교육을 받을수 있죠.

편 : 음모 과정에 대해서 좀 ...

권 : E.S 이 가서 싸인한후 기라리면 계약을 맺은 학교로 보내 줍니다. 학교에서 받아들이면 입학이 되는 겁니다.

편 : 마지막으로 On the Job Training 이란 어떤것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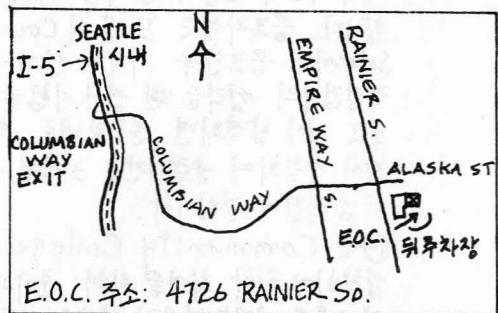
권 : 기술을 배우는 것과 일하는 것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종의 전습공 사할거요. 월급은 정식 월급의 반을 받을수 있습니다.

편 : 음모 과정은요?

권 : 직장이라 직접 음모하는 겁니다. 물론 직장 안내는 저희가 하는 거죠.

편 : 오랫동안 시간 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분은 E.O.C 에 가서 권영길씨나 김흥기씨만 찾으면

변 되겠지요.
 권 : 그렇죠. 전화번호는 725-8200
 습니다.
 권 : 그렇듯은 Mrs. 권께 꾸중드리
 마시고 ...
 권 : 원 발발씀을 저 짐사람은 이해심이
 많습니니다.



E.O.C. 주소: 4726 RAINIER SO.
 ◎내가 본在美韓人社會二十七年
 全啓相

香港에 到着하자 新渡學生들이 왔
 라 해서 반가히 맞아주던 屈留僑胞들 한분
 한분 "先生은 오셨지 얼마 되나?" 하니
 가 "레비서 - 三十年이 되었사" 하던것을
 듣고 속으로 "이사람들이 대체 뭐라고 여기
 와 이런 생활을 계속할까" 했었는데 이제
 는 내가 그 처지가 되고 마는듯싶다.
 지금 생각하면 日本에서 두대집 받고 살라
 美國이 뒤꿈보자고 건너온 나를 오혀려 자랑
 할 까닭도 없다고 보았으리라고 믿어진다.
 리스는 莫論하고 二次大戰後를 계기로 하
 여 美國이와 정착케된 사람들은 本意였던
 아니었던 美國韓人교포 족보로봐 結局내가
 그제본 그사람들의 後繼者가 된셈이다.
 내가 Seattle에 오니까 (1948)
 Seattle의 韓人人口는 卅代의 移民老人
 四五名 U.W이 관련된 學生敎授十名
 内外 美國家族과 特別한 관계로온 靑은
 이 몇 이렇기 二十餘名에 不過했었다.
 Tacoma나 Everett은 생각속에도 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슨 機會로 벗어나서 만
 나게되면 그렇게 반가울수가 없었다. 二年間
 M.E. Master Degree course를 하
 는동안 韓人人口는 別로늘지 않는것으로
 기억이 되니까 그 몇두는 土増加率이 적었다
 고 생각된다. 二年後 돌아 갈까 말까 하고
 있는 中 韓國戰爭이 터져 Chicago로 가
 기되였다. Chicago가 가나가 거기에도
 韓人社會는 구조가 Seattle과 마찬가지로
 巨大한 Chicago市에 가물어 놓나듯 여기
 저기 홀로 살아나가는 社會人五,六世代
 (韓人 宣理敎會도 포함) 외에는 新渡學生
 이 十餘名 都合 四十名 卽라고 생각된다.

韓人敎會는 韓人들의 集散地가 되었었다.
 1950年 Christmas 禮拜後에는
 Chicago 韓人學生總會가 敎會서 열렸
 었는데 어리서나 하는 式으로 서로 벗모르던
 내가 學生會長에 뽑히고 말았다.
 五年半 Chicago에 있는 동안 學生數
 와 韓國에서 訪問客은 急増했다고
 기억된다. Ph.D를 거의 끝내게될 무렵도
 韓國에서 消息은 그것이 가족에서 왔든
 同僑先輩에서 왔든 「韓國은 못살것 ...」
 이라는 詩. 이것은 그때 美國에서 살던 사람으
 로부터의 소식과 美國을 나러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依한 判斷이였으나 根本의
 없는 詩은 아니었으리라 한다. Chicago
 에서 살던 韓人大部도 甯를 했는지 卽
 滿足하게 살아간것 같다. 移民局도 쫓아
 다니며 甯가사기 하지는 않는것 같다.
 結局學位는 Indianapolis에서
 취득하게되였다. 韓人은 커녕 東洋사람
 조차 귀하는 곳으로 살려가는 것은 귀양이나
 가듯 느낀것을 지금도 기억한다.
 Indianapolis은 當時(1956) Seattle
 의 1948년 만금도 韓人人口가 없었다.
 그러나 한사람 特異한 存在가 있었다. 그분
 은 의사로 무슨 병원이 쫓겨간 地位를 가
 지고 있던분이였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二,三
 十年前에도 美國內에는 이분과같은 美國
 社會에 適合한 자리에 어떻게 도달한 소
 수의 사람들이 있었건것이라고 느껴진다.
 Indianapolis에서 三年半 있는 동안에도
 韓人人口는 좀 늘었으나 大部分이 學生이나
 年限제한 의사, 敎수들이였다. 定着하는
 한의 仕는 없었었다.
 아무리 李承晩 政府에 교섭을 해보
 아도 變속한 약속없이 白國만 하라 命令뿐
 이므로 1958년에는 한국으로 가는길에 Boeing
 에서 일하면서 Seattle에 재차왔다. 라
 시와본 Seattle은 크게 變換한 한인사회를
 보여 주었다. 定着한 世代後도 늘고 학생수
 도 數十名이여 Boeing 회사에 인도 十名內
 外의 韓人이 從事하고 있던것으로 기억한다.
 學生中에는 夫婦로 와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 눈에 띄었고 其中에는 어린이들까지 있
 는 사람들도 있었다. 라시말하자면
 1958년의 Seattle 한인사회는 今의 한인
 社會의 구조와 규모만 작을뿐이지 조그마하
 림이 없었다고 말할수 있겠다. 내가 본
 1948년의 移民의 韓人社會는 新渡學
 生 韓人社會를 거쳐 이이 二世를 기르
 기 시작한 第二段階의 韓人社會의 草創期
 에 이르렀던 것이였다.

1958년부터 今속까지의 變換은
 아는 사람이 너무 많을까하니 티셔기 靑을
 必要가 없을까 한다. 마치고前에 한가지
 덧붙여 말하고자 하는것이 있다. 二次大
 戰直後에 새로 美國이와 限量없이 物
 質과 文明의 豊富를 즐기고 있는 美國 사람
 들을, 사람들中에는 어찌서 이곳 우리
 동양사람들은 똑같은 立場에 서지 못하나 하
 고 몹시 안락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우리도 이 新天地에서 한
 人種이 못지않게 開拓하며 살기 시작
 해 보지 않으면 안되지 않나?」 하고 생각
 했던것이다. 卽故國도 故國이지만은
 어느사람들은 美國에서 그 理想을 使命으
 로 세우고 투쟁해 나가야 하겠다는 正義感
 을 거리모음이어서 洗濯業으로 肉약별
 農場에서 큰 企業體掃除夫로 昇進하는
 美國內 東洋사람들을 보고 痛切히 느꼈라
 는 것이였다. 그와같은 正義感으로 이나라
 에서 定着하기를 決定한 사람은 오늘날
 美國의 韓人社會가 저처럼 발전한 것
 을 보고 큰 滿足感을 느끼고 있다고 본다.

五洋食品店
 FIVE SEAS
 집에서 만든 순
 한국식 음식 價가로 판매.
 김치, 깍두기, 보쌈김치, 김밥
 각종 정갈, 떡, 반대떡, 만두
 한국 요리 일체를 주문 받음.
 바나나, 감도 주문 받음.
 상점 시간 연장
 월요일 - 금요일
 10:30 7:00
 토요일 - 일요일
 10:30 6:00
 주소
 543 N.E. Northgate Way
 SEATTLE WA. 98125
 TEL: 363-6850, 525-2985

◎ 어둑자 이끼 기쁜소식들

오 정숙
 Down town 이 4th and madi-
 son 이 위치 Seattle public Lib-
 rary (시립도서관 본관)에서는 최근
 한국서적 25권을 한국에서 부려 구입하였
 다. 서적의 대부분이 문학적인 것으로
 재미있고 팔악한 短편 소설집과 시집을 비
 롯해서 한국문학 공부에 도움이 될 참고서도
 포함되어 있다.
 시립도서관은 시인의 서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누라 도서관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금번 도서관측에서 Seattle에 살고 있는
 많은 한국사람이 언어의 장애로 인해 독서를
 하지 못하고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事로
 를 깨닫고 처음으로 한국서적을 구입한 것
 이다. 25권의 한국책은 이곳 도서관이
 구비된 다른나라의 서적과 비교할때 적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시기적으로 보아 늦
 게 갖추어진 편이다. 그러나 우리책이
 도서관에 비치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기쁜
 일이며 의미깊은 일이다.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도서관에 등록
 하여야 하고 동시에 도서관 카-드가 있
 어야 한다. 도서관 靑년이 들어서면 오
 른편이 있는 안내소에서 일하는 이들이
 카드를 만들어 준다. 카드를 만들때 본
 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야 하
 고, 또한 친척을 제외한 같은집에 살지
 않는 보증인 2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를 써야 한다.

카드를 3년동안 유효하며 무료로 받
 는다. Seattle시 밖에 사는 사람은 카
 드를 발급 받을수 없지만 시립도서관의 책을
 빌려 볼수 있다. 시외에 사는 사람은 책을 갖
 고 나갈때 Check out 이라고 써있는 책
 상이 갖추어 거기 일하는 이에게 설명하면
 주소와 이름 등 몇가지 사항을 적고 그후에
 간단히 책을 빌릴수 있다.
 한국책이 있는곳은 들어가면서 靑이
 왼쪽으로 위치한 Literature Depart-
 ment (문학과)이다. 책 한권 한권이
 번호가 있는데 한국서적의 번호는 895.73
 이다. 지금부터 3개월동안 우리책은
 New Foreign Book Section (새로
 도착된 외국책)에 꽂혀있기때문에 3개월
 후에는 문학과에 있는 다른책과 함께 번
 호대로 진열될것이다. 영어가 서툰 사
 람이라도 말이 별로 필요없이 손쉽게 책을
 빌릴수 있으며 또한 도움이 필요할때는 여러
 명이 도서관에게 도움을 청할수 있다.
 시립도서관 본관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까지 9시부터 9시까지 열고 금요일과 토요일
 앞은 9시부터 6시까지 일을보라. 도서관에는
 책은 물론이지만 리코드와 Cassette 테이프
 이 Music Department (음악과)에
 구비되어 있어서 빌려다 쓸수 있고 또한
 Art Department (미술과)에는 벽이
 갈수 있도록 장식된 고전과 현대의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 있는데 빌려다가 자꾸 갈아
 가면서 감상할수 있다.
 어린이들의 책 또한 음악과 이야
 기로된 리코드와 Cassette 등도 빌려다
 쓸수 있고 또한 16mm와 8mm 영화
 film도 무료로 빌려다 감상할수 있으므로
 가족 전체가 도서관의 혜택을 즐길수 있다.
 앞서 말한 리코드와 film은 한국것이 아
 니다. 우리가 외국생활이 바쁘게 살아

가지만 조그마한 정성을 들이면 우리의
 靑년생활을 살찌게 할수 있다. 도서관이
 열려있는 시간동안 도서관에 설치된 크고
 작은 회의실과 강당을 미리 예약하면 무료
 로 빌려 쓸수 있다.
 도서관에서는 독자가 원하는 책의 수를
 제한하지 않고 빌려주며 그 기간은 4주
 이다. 잔치 앞으로 3개월동안 한국서적이
 New Foreign Section에 있는동안
 은 빌려 볼수 있는 기간이 2주간으로 잔치권라
 책을 기간안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
 금을 물게 된다.
 도서관에 있는 25권의 한국책은 교포
 수에 비해 극히 적다. 우리가 한국책을
 갖라볼때 한가지 생각할것은 도서관에서
 빌려갈수 있는 책의 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해서 먼저간 사람이 한꺼번에 기간안에
 빌릴수 없는 많은 책을 갖고 간다면 후의
 가는 사람이기 살양을 줄것이다. 우리가
 서로 서로 읽을수 있는만큼의 책을 몇권 빌
 려보고 라 읽었으면 비록 기간이 차지
 않았더라도 반환하고 또 다른책 몇권을 갖
 라 읽으면 많은 독자들이 우리책을 즐길수
 있을것이다. 책을 빌릴때는 시립도서관
 본관이 Downtown에 가야하지만 책
 을 반환할때는 이곳에 있는 branch
 library (시립도서관 분관)에 반환
 할수 있다. 지금 도서관에서가 한글과 영어
 로 작성되고 있는데 앞으로 책소개서가 작
 성되면 각 분관이 배부러져 본관에서도 책
 을 빌려 볼수 있도록 도서관에서 계획하고
 있다.
 시립도서관 문학과에서 일하면서 동
 상서적의 구입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이 친구
 Mrs. Tongleo의 부락을 받고 한국서적
 Cataloging 하는것을 집에서 도우면서
 우리책을 손에 들고 읽을때 갈개무량할을
 금할수 없었다. 친구의 말에 의하면 동양서
 적을 구입하기 위해 배낭된 예산이 제한되어
 있기때문에 한번에 한국서적을 확장할수 없
 지만 한국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 차
 츄 한국서적을 늘리기 위해 힘쓰겠다고 하며
 현재 150권이 상당한 한국책이 주문중에
 있다고 한다. 우리가 한국책을 읽고 도서관
 을 이용하므로 우리의 마음의 갈증을 풀수
 있고 또한 한국서적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
 을 도서관측에 알릴수 있게 된다. 한국서적
 이 이곳 도서관이 오기까지 애써준 Mrs.
 Betty Tongleo와 Mrs. Wenda
 Brockman에게 감사드린다.

WELCOME TO
 타코마 명물
 "냉면"
 만두, 반대떡,
 달걀비, 훗희하
 맛좋은 "반대떡"
 CLOSED MONDAY
 SUN - THUR 10:30 AM - 10:30 PM
 FRI & SAT 10:30 AM - 2:30 AM
 竹
 WE ARE NOW SERVING DELICIOUS
 AUTHENTIC CANTONESE KOREAN
 AND JAPANESE FOOD
 BAMBOO HUT
 RESTAURANT

아기 보기 원합니다.
 연령이 관대없이
 여정으로 성실할보아드리
 겠으니 일하시는 어머니나
 부부동반 나가실 일이있으
 신분은 서슴치마시고 전화
 해 주십시오
 Mrs. Soon Ja Kim
 5205 - 230th St S.W
 Mountlake Terrace
 WA. 98043
 TEL: 776-7115

시아틀 한인기독교회
- 교포의 안식처로 출범 -

이역만리 이국땅에 살고 있는 한인 교포들의 영적, 정신적 갈증해소가 날로 시급해져 가는 즈음에 지난 6월 둘째 주일에 한인기독교회 (Korean Christian Church of Seattle) 가 설립되어 교포사회를 위한 하나의 등거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인기독교회는 다운타운 근방 Seattle Centual Community College 바로 건너편 1632 Broadway Ave 에 자리잡고 있는 현제 30명 안팎의 교인이 모여 매주일 아침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미국사회에서 소외감속에서 살고 있는 불신자(不信者)를 상대로 전도 하겠다」고 말하는 값있는 정화경목사는 한양대학교에서 철학을 강의, 또 한양대학 S.C.M 교부등으로 활약하다가 1970년 가족과 함께 미국에 이주해왔다. 연락을 희망하시는분은 782-6593 으로 하시면 된다.

U. W. 학생회 주최
- 정구대회 개최 -

8월 초순경 학생회 주최로 정구대회를 가질 예정인데 U.W 학생이외, 모든 정구 애호가들의 관심을 희망하고 있으니 참가하시고 싶은분은 학생회장 김철준씨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633-5236)

◎ 한인회비 납부를 요망합니다.◎

워싱턴주 한인회는 워싱턴주에 살고 있는 한인교포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유용하게 쓰일 한인회비 납부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교포사회에서 한인회비가 쓰여질 요도는 무한합니다. 한인회는 여러가지 새로운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정에 부원처 실형 못하고 있습니다. 한인회비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제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강요할 성질의 것은 아니며, 한인회를 돕는 의미에서 1975년도 한인회비를 아직 못 내신분은 아래사항을 참조해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 5불 이상, 만 18세 이상의 학생 및 독신자. 3불인데 아래양식 참조, 주소, 성명, 금액을 정확히 적어 한인회 저주함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회비를 보내실때는 수표나 어니오터를 사용하시고 현금 우송은 금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회비를 내신분에게는 영수증을 보내드리는것이 원칙이지만 편지상 메일 발송되는 한인회보 이영단을 발표하므로써 영수증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75년도 한인회비 \$ _____

성명: _____

주소: _____

보내실 주소: MRS. LADELL SMITH
921 LAKESIDE AVE S.
SEATTLE, WA. 98144

한인회비 내신분 (7월2일현재)

- 59. Sung Kil Kim 5\$
- 60. Sang Yul Hahn 5\$

정정할 사항

1. 편입후기 중 최재원씨 (박사학 과정)을 (정치학 박사과정)으로
2. 학기말의신분들중 이학림씨를 이상림씨로 정정.

수고 하신 분들

- 글씨: Mrs. 우영덕
컷: 백광호씨 (건축사 실무중)

동양상점

한국고유미와맛을 자랑
(주소) 10618 BRIDGEPORT VILLA TACOMA
*월-토 10:00AM - 8:00PM
*일요일 12:00AM - 6:00PM
582 - 5565

결혼소식

김도호씨 - 7월에 한국이 나가 화축.
진인석씨 - 8월3일 서명희양과 결혼 예정.



419 First Ave. S. / Seattle, Wa. 98104
(206) 624-4277

POWER SEWING MACHINE OPERATORS

Immediate openings for trainees & experienced operators. Trainees are given excellent training which offers a rapid acceleration of pay based on piece work. Experienced operators start at competitive guarantees. If you are ambitious and desire high earnings, apply at Sunset Sportswear, Inc., 419 1st Ave. S. Equal opportunity employer, union shop.

재봉사 급히 모집

경험이 없으신 훈련생, 또 이미 경험이 있으신분을 널리 구하고 있습니다. 응모하실곳: Sunset Sportswear, Inc., 419 1st Ave. S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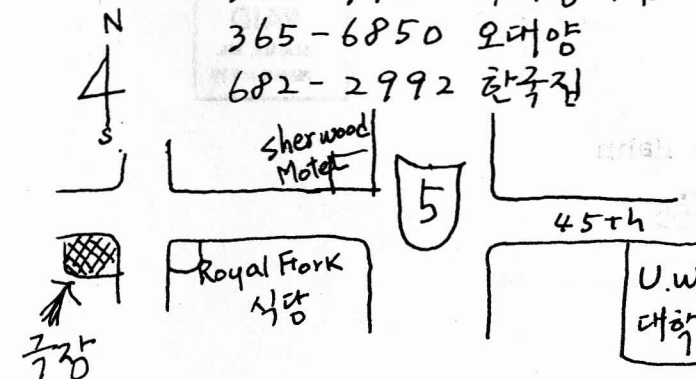
영 화 상 영

금번 건축위원회에서는 여러분을 모시고 시애틀, 타코마에서 다음과 같이 한국영화를 상영코저 하오니 온가족과 친구들을 모시고 많은 성왕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영화는 영어자막 (English Subtitle) 이 있으므로 미국 친구분들도 즐기실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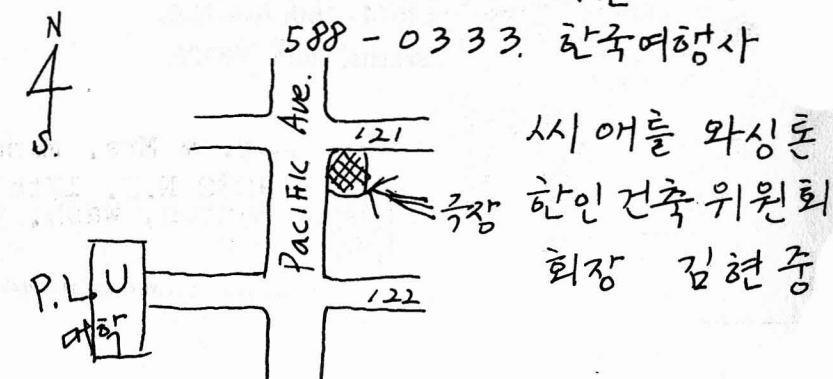
시애틀

1. 제목: "군번없는 용사" 희극 총천연색
2. 장소: GUILD-FORTY-FIFTH THEATER
2115 N. 45th., SEATTLE.
3. 시일: 1975년 8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
4. 입장료: 성인 \$2²⁵ 아동 \$1⁰⁰
예매 \$2⁰⁰
5. 예매처: 624-2227 Kim's 여행사
523-7661 서서클
345-9740 아리랑주점
365-6850 오대양
682-2992 한국집



타코마

1. 제목: "군번없는 용사" 희극 총천연색
2. 장소: PARKLAND THEATER
121 st Pacific Ave., Tacoma
3. 시일: 1975년 8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4. 입장료: 성인 \$2²⁵ 아동 \$1⁰⁰
예매 \$2⁰⁰
5. 예매처: 588-5000 동양원
531-5232 비원
588-0333 한국여행사



시애틀 와싱턴 한인건축위원회 회장 김현중

팔신 (PAULL SHIN) 부동산

firstline properties inc.
Member of North End Brokers Assn.

- 알맞는 주택알선
- 노리 및 부동산 안내
- 아파트 건물 구입 소개
- 기타 상업안내

*부동산을 매매 하실 때는 신용과 많은 이익을 보장하는 팔신에게 문의 바랍니다.

신호범 PAULL HO BOM SHIN
Sales Representative

PHONE Bus. 365-6363 Res. 778-1972
11514 - 15th Avenue N.E. Seattle Washington 98125

